

# 국가예산 기재부 단계 '선제적 대응'

### 정현을 익산시장, 본격적 예산심의 대비 사업소개 · 예산반영 건의

정현을 익산시장이 내년도 국가예산 1조원 달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순회하며 목표치 달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 시장은 8일 기획재정부의 사회예산심의관, 관련 예산과장 등 정부 예산의 핵심 간부를 찾아 지역 경제 상황과 사업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정 시장은 기획재정부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과의 면담에서 왕궁정 착농원 현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사업의 예산과목 변경으로 2011년부터

진행 중인 축사매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또한, 관련 예산과장들을 만나 △산재진문병원 건립 △백제왕궁 금마저역사문화공간 조성 △홀로그램기술사업화 실증지원 △식물문화복합 혁신센터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등 주요 사업이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이번 방문은 이날 말 마무리되는 기획재정부 1차 심의 기간 동안 미온적인 사업들에 대해 논리 보강과 타당성 강화를 통한 삭감방지 대책을 세우고

미반영 사업과 과소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부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2차 심의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지 낙락될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전북도는 물론 김수흥·한병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기재부 심의 기간 동안 지역 중점사업들이 낙락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정 시장은 "국가예산확보에 있어 예산순가에 따른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가 지역경제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 “행정적 · 재정적 지원 할 것”

### 군산시, 기업인들과 지역경제 · 산업단지 활성화 위한 간담회

군산시가 지역경제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시는 8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김임준 군산시장과 군산공단발전협의회 새만금발전협의회 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경제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시 뜨는 군산 산업단지! 다시 뜨는 군산산업의 명수!'라는 부제 아래 우리 군산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새

만금공단 대중교통 활성화, 재생에너지 공급 대상 확대, 채용 및 고용 활성화와 신호 · 속도위반 CCTV 설치 등 교통신호 체계 개선, 산단 내 주차 공간 확보 등에 대해 건의했다.

강 시장은 "국내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해온 기업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군산=이재춘기자

## 문화도시 익산, 맥주 한잔과 음악으로 소통 '비워? 비-어!'

### 청년기획자들 대학로서 음악적 교감과 소통의 장 마련

맥주 한잔과 음악으로 청년 아티스트들과 관객들이 함께하는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익산 대학로에서 펼쳐졌다.

익산 청년기획자 4명은 지난 7일 신동 대학로에 위치한 '올댓뮤지션'에서

로컬뮤지션 콘서트 '비워? 비-어!'를 개최했다.

'맥주'와 '음악'이라는 공감대에서 서로 다른 음악적 활동을 하는 지역의 청년 아티스트들이 모여 관객들과 함께 교감과 소통을 나누는 로컬뮤지션

콘서트 형태로 진행했다.

어쿠스틱 싱어송라이터 '페이지'와 일광대학교 동아리팀인 '노크', 익산에서 활동하는 힙합그룹 'BTF' 등이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과 더불어 토크백 타임으로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공연을 함께 한 시민들에게 맥주와 안주 제공 및 행운권 추첨은 그 현장을 더욱더 즐겁게 만들었다.

이번 공연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우리동네 문화공작소'의 문화기획자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역에서 활동할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해 6주간의 문화기획 이론교육, 5주간의 전문가 매칭 멘토링, 3주간의 프로젝트 실습으로 진행된다.

'로컬 뮤지션 콘서트'를 기획한 황준혁(31), 이윤서(29), 이주연(22), 김수민(24) 교육생 4인방의 특별한 이력이 빛을 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농기센터, 이화명나방 방제적기 설정 페로몬 트랩 설치 운영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컸던 이화명나방의 활동 밀도 조사와 방제적기 설정을 위해 4개 지점에 태양광유아등과 페로몬 트랩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기센터는 지난해 벼 수확이 끝난 논에서 지난 5월 15일부터 나방성충을 유인하는 태양광 유아등과 페로몬 트랩으로 1회기 성충의 발생시기와 발생량 조사 결과 지난해 피해가 컸던 2모작 지역을 중심으로 이화명나방의 발

생량이 다른 지점보다 월등히 많고 발생 시기도 일주일 가량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명나방 1회기 방제적기는 나방성충이 가장 많이 발생한 날로부터 11~17일 사이로 금년에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나방이 대량으로 잡혔다. 이에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방제 적기로 판단되며 전년보다 발생 포장, 주위보다 일찍 모내기한 포장 및 맥류재배 포장 주변은 특히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상지처리제

를 살포 했더라도 본답에서 추가로 방제를 해줘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아직 모내기를 안 한 논은 상지처리제 선택 시 반드시 이화명나방 방제효과가 있는 상지처리제를 살포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화명나방은 1년 중 2세대가 발생해 벼에 두 번의 피해를 주는데 논이나 논 주변에서 유충으로 겨울을 지내고 이듬해 성충이 되며 벼 줄기속을 갉아 먹어 벼잎과 줄기가 말라죽기 시작한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자동차 관리하는 법 적극 홍보 나서

군산시가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과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에 대한 인식)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관련 증명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된다. (\*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은 번호판 1개 반납 필요)

시 관계자는 "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의무보험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의 편의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으로 임명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은 관련 증명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된다. (\*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은 번호판 1개 반납 필요)

시 관계자는 "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의무보험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의 편의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지역 소식통

#### 익산시지사협, 취업특강 개최... 취업정서 강화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자리 잡(job)는 취업특강'을 개최해 취약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정서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특강은 스트레스 해소와 자존감 회복을 위해 취업역량 강화와 정서적 지지를 동시에 제공했다.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명주)는 지난 8일 익산원광지역사회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구직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취업특강을 개최했다.

취업 의지가 있지만 접근성이 낮은 청년, 중장년, 다문화 여성 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법과 면접 코칭, 개별 취업상담이 병행돼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 군산시, 가리비 양식어장 개발사업 추진

군산시가 군산해역에 맞는 양식품종 연구로 고부가가치 신 품종 전환을 위해 가리비 양식어장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김양식어장의 잦은 질병 피해로 이를 대체할 신 품종 시험 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옥도면 고군산해역 적정 양식품종에 대한 시험 연구와 고부가가치 신 품종 전환을 위해 가리비 치폐를 입식했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억원을 투입해 적정 신양식 품종 전환을 위해 가리비를 비안도 선유도에 치폐입식 했으며 올해에는 방축도에 가리비 60만개 치폐 입식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한곡수산지원공단 서해본부와 위탁을 체결했으며 신 품종 양식어장 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성원 어업진흥과장은 "우리시 해역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수산종자 방류와 산란식장 조성 등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